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

祝 辭

2019. 10. 29(화) 10:30
63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

금융위원장 은 성 수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제4회 금융의 날에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금융계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금융의 날 취지

과거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근검절약하여 저축한 덕분에
자본을 모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64년부터 '저축의 날'을 기념해왔습니다.

오늘날 금융은
저축뿐만 아니라 주식·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발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16년부터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한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꾸준한 저축에 더해
주위를 살피는 따뜻함을 실천하시고
혁신 금융, 서민 금융 부문에서
우리나라 금융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장본인들이십니다.

국민포장을 받으신 이남림님은
18세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볼펜장사를 시작으로,
생계를 위해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생활하며 저축해
안경도매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한 후에는
과거 본인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난 18년간 65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난치병 어린이 300여명의 수술비를
지원하셨습니다.

국민포장을 받으신 양인준님도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25년 동안 마트를 운영하시며,
근검절약으로 모은 자금을
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등에 쓰시고 계십니다.

전주새연초등학교 한수현 군은
금융위원장표창을 받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며
저축을 생활화하고 있는 기특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시절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차곡차곡 모아
저축했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생활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금융의 날을 기념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금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은
저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녹조근정훈장을 받으신

김용진님은

핀테크 혁신 기업과 인재 육성에 힘쓰고 계시고,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김태훈님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로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하셨습니다.

금융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국민훈장을 받으신

심재철님은

햇살론 17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서민분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해주셨습니다.

한편, 국무총리표창을 받으신 김명원님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상담 및 홍보를 통해
일선에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금융의 날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미담이 널리 전파되어
금융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금융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Ⅲ. 환경 변화와 과제

저축, 혁신금융, 서민금융 부문에서
금융발전을 위해 기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새로운 3저(低) 현상으로
손실위험이 큰 고수익 상품의 판매가 늘면서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 경제성장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들이 시도되고,
금융의 포용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금융의 모습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세 축이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갖춰질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역할>

먼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라는 도구를
잘 알고 지혜롭게 활용할 때
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정확히 이해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금융 관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금융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금융은 발전할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역할>

금융회사들은

상품의 기획, 판매, 사후관리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혁신의 주체입니다.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용적 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의 역할>

정부는 우선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 부채, 그림자 금융 등 위험 요인과
고위험 상품 쏠림 현상 등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금융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따뜻한 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현을 위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V. 마무리 말씀

‘금융의 날’을 맞아
금융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금융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금융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금융이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좀더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